

38 ‘결국 이런 뜻이죠?’라고 말하면 안 되는 이유

• ‘무지(無知)의 知’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안다’는 뜻이다. 애초에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인식이 없으면 학습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당연히 지적으로 태만해 진다. 잘 모른다고 생각하기에 자료를 조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묻기도 하면서 노력하게 된다. 이를 달인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정리 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 ②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안다.
- ③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 ④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 위에서 ④의 단계가 달인의 경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진정한 달인, 즉 숙달의 영역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잊고 있는)’ 상태, 즉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몸이 그렇게 반응하는 정도의 수준에 이른다.

• 우리의 배움은 알았다고 생각한 순간에 정체되고 만다. 과연 스스로 설렘 만큼, 앞으로 자신이 달라졌다고 생각할 정도로 알게 되었는가? 우리는 안다고 내세우는 일에 조금 더 겸허해져도 좋을 것이다.

• 또한 이 충고는 불쑥 어떤 일을 정리해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의 ‘위험성’을 떠올리게 한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정리’하고 싶은 욕구를 억누르기 어려운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상대가 말하는 요점을 뽑아내고 일반화해서 정리하는 일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결국 OO이라는 뜻이죠?”하고 끝내는 습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힐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 상대와 더욱 깊이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창조적인 발견과 생성을 이끌어 내려면 ‘결국 OO이다’는 식으로 축소해서 인식하거나 자신이 알고 있는 과거의 데이터와 조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만약 “결국 OO이라는 뜻이죠?”라고 요약하고 싶어질 때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새로운 깨달음과 발견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자.

쉽게 아는 것은 과거의 지각 틀을 그대로 늘려 가는 효과밖에 가져다줄 수 없다. 정말로 자신이 바뀌고 성장하려면 안이하게 ‘알았다’고 생각하는 습성을 경계해야 한다.